



음악·색채로 전하는 희망

자폐성 장애 연주자 김유환
다운증후군 화가 김진수
피아노 선율과 그림 만남
다음 달 1일 희망콘서트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 김유환(26), 다운증후군 화가 김진수(37). 두 예술인이 여름날 제주에서 음악과 색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는 8월 1일 오후 4시 우리복지관(제주시 산천단남길 40) 대강당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김유환·김진수의 희망콘서트'다.

김유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치료를 위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연주자로 성장했다. 김진수는 약시로 인한 그림 작업의 어려움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모든 연주 순서에 김진수

작가의 작품이 배경 화면으로 등장한다. 김유환이 피아노로 바흐의 '평균율 1권' 중에서 전주곡 1번과 21번, 쇼팽의 '24개의 전주곡' 중에서 4번과 3번,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등을 연주하는 동안 김작가의 '생명을 뿌리는 나무', '봄날의 정원'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유환이 멤버로 참여한 '희망나래트리오' 공연도 선보인다. '희망나래트리오'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근무하는 3명의 자폐성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양나영이 지도교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윤극영의 '반달',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꿈' 등 귀에 익은 음악을 준비했다.

김유환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김현아가 이끄는 '도전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김유환(왼쪽)과 화가 김진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제공

무대도 있다. 발달 장애 아동과 전문 피아니스트가 함께 만드는 즉흥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이 콘서트는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주음악멘토링센터의 협력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발

달 장애인에 대한 예술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장르가 다른 두 예술가가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발달 장애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육필문학관 제주, 문태준 시인 낭독 북토크=자연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문태준 시인의 다채로운 시편들이 낭독된다. 낭독 후에는 독자와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 작가의 작품 세계, 문학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31일 오후 7시. 선착순 30명 모집. 육필문학관 제주 인스타그램(@jeju.handwriting) 참고.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불로 뭐 할 건데?'=여름방학을 맞아 작은 이불 한 장으로 책 읽는 공간을 만드는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은 이불은 이달 20일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독서 아지트를 조성하고 그 공간에서 독서 활동을 진행한 뒤 인증 사진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운영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전 온라인 이벤트'=박물관 특별전과 김영갑갤러리두모악 전시 중 한 곳을 관람한 인증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박물관 공

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링크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이다.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스페셜 굿즈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당도서관 '2026년 길 위의 인문학'='제주의 사계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주의 자연과 개인의 삶을 그림책 창작으로 표현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월 29일에는 후속 모임으로 출간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 참고.

▷제주콘텐츠진흥원 '쿨쿨(CoolCool) 시네마'=여름방학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 이달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아시아CGI에 니메이션센터 나동 1층 올망졸망 시네마극장에서 매주 평일 오후 2시 운영한다. 월요일은 애니메이션 명작, 화요일은 가족 영화, 수요일은 한국 영화, 목요일은 세대를 잇는 추억의 명작극장, 금요일은 특별 테마 작품 등 요일별로 빛깔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해녀·제주큰굿 영상기록화 사업

국가유산청, 내년 8월까지
전승 현황 등 체계적 기록

국가유산청이 '해녀'와 '제주큰굿'에 대한 영상기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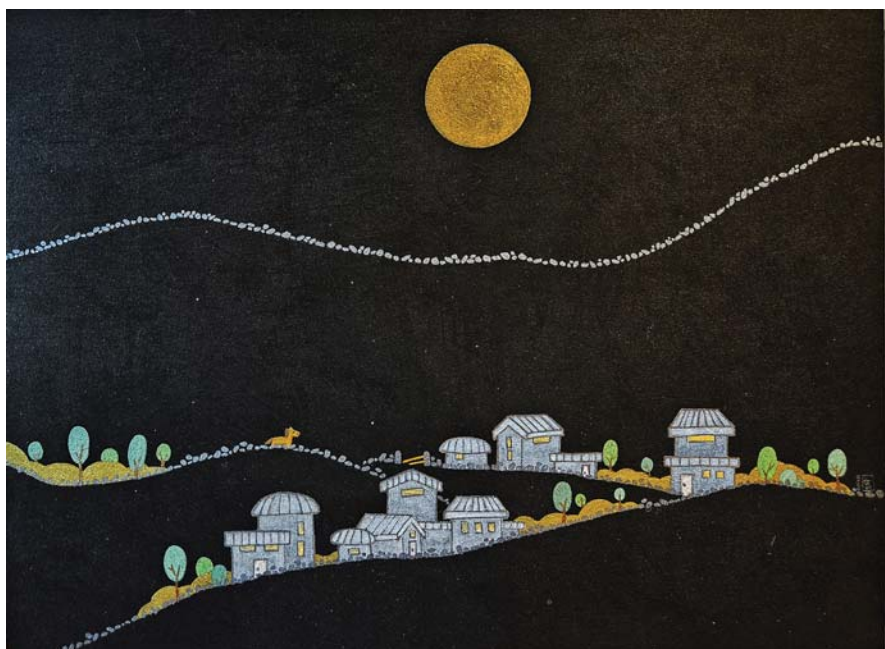
1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는 국가무형유산의 기·예능과 전승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무형유산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1995년부터 기록영상과 기록도서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왔고 축적된 기록은 학술 연구, 교육, 전승 활동 등에 쓰인다.

이번 영상기록화 대상인 '해녀'는 전통적 해양 문화로 여성 어로 문화를 대표한다. '제주큰굿'은 제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전승 과정과 의례 전반을 담는다. 이들 무형유산에 대한 영상기록은 다년간의 현장 기록과 심층 조사를 거쳐 2027년 8월 완료 예정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제주 관련 국가무형유산인 탕전장(2000), 갯일(2001), 망전장(2001), 제주칠머리당 영등굿(2007), 제주민요(2018) 등을 영상이나 도서로 기록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기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를 디지털로 개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강은정·김소라·이하늘 3인
여성 작가 그룹 공 기획전

강은정·김소라·이하늘 등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인의 여성 작가 그룹 '공(空)'. 이들이 모교인 제주대학교에서 그룹전을 열고 있다. 15일부터 예술디자인대학 재미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공동(空同)의 온도'다.

강은정의 '이색의 공간', 김소라의 '애(愛), 증(憎), 그림에도', 이하늘의 '거닐다' (사진) 등 세 작가

가 펼치는 작업 세계는 각기 다르다. 이번 전시에선 이 같은 차이의 감각이 드러나고 교차하며 그 사이에서 관계가 빛나는 다양한 온도의 결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 전시는 함께 있음이 반드시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거리와 온도를 통해 관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고자 한다"고 했다.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오후 5시. 전선희기자



박은숙 캘리그래피 개인전 작품 일부.

작가 제공

종이 위 활짝 피어난 글꽃
캘리그래퍼 박은숙 개인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말들 사이에서 붓끝에 오래 머물러야만 피어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써 내려간 글자들은 어느새 하나의 꽃이 되어 피어났습니다. 서툴렀던 마음도, 망설였던 손끝도, 결국은 저마다의 모양으로 활짝 피어난 꽃송이였음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홍운캘리그래피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은숙 작가. 그가 세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며

작성한 인사말 중 일부다.

'글꽃이야기'라는 제목처럼 이번 전시에는 오래도록 가슴에 담고 싶은 시의 한 구절 등 캘리그래피 작업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문장들이 꽃처럼 펼쳐진다. 작가가 한 획 한 획 시간을 들여 쓴 글자들은 누군가에겐 위로의 언어가 될 것이다.

전시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칠십리시공원 안에 있는 스페이스70. 박 작가는 "전시장을 나설 때쯤이면 관람객의 마음에도 글꽃 한 송이가 피어, 그날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 황 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용담2동 성화마을회
마을회장 강성을 노인회장 변창현
부녀회장 김수애 장년회장 김형국
청년회장 김정윤 외 주민 일동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